

지역 매아리

표준 관광안내체계 구축

김제시보건소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수능이 종료되는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주·야간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일반음식점 594개 및 호프집, 소주방, 주점 등 57개의 총 651여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주류 등 청소년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개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이행여부 △납품은 음식 줄이기 실천 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이며, 청소년 관련 안내문 전달 및 처벌 때는 먹을 만큼, 먹을 때는 남김없이 등 홍보·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읍 새마을 지도자회·부녀회

사랑의 쌀 100포기탁

만경읍 새마을 지도자회장(서재선)과 새마을부녀회장(박정애)은 마을 경로당 및 마을 주변에서 폐농약병, 캔, 폐지 등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여 지난 22일에 경로당 및 저소득계층에게 사랑의 쌀 10kg 100포를 읍사무소에 기탁했다.

새마을 지도자회와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공병과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 보전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을 관내 저소득을 위해 기탁하며, 남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회원들이 환경 정화에 나서면서 만경읍은 거리에 담배꽂초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깨끗한 읍으로 변신했다.

또한, 사랑의 쌀 기부 이후에도 만경읍 사회단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만경읍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새마을지도자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자 기탁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뿌듯한 소감을 밝혔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항상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만경읍 사회단체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디자인 확정 완료보고회

내년도 관광 안내판 제작·설치

완주군이 지자체 최초로 대중교통과 도보여행자를 위한 표준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2일 완주군은 관광안내판 설치지점 조사와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는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앞서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맑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공모에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완료보고회는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1단계를 완료하는 보고회로 디자인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내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관광안내

판을 제작, 설치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갔으며, 주요 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 여행 동선, 만족도 등의 의견 수렴과 관광지별 지리적·주변환경 여건에 대한 환경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례문화예술촌, 소양한옥마을, 솔테마박물관 3개 주요관광지에 100여개의 관광안내판 설치지점과 군 특성을 반영한 5종의 디자인을 확정했다.

관광안내는 '다녀오니 좋은 곳 완주, 다시 오고 싶은 완주'의 'Walk Wanju' 컨셉으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수 표시의 글을 쓰고 호남선 전주통게이트 현관, 국립전주박물관 문패의 주인공인 여태명 원광대학교 교수가 '완주'의 글씨를 써줬다.

본 사업을 추진한 박세훈(주)더서이드 대표는 "10개월여 동안 완주 곳곳을 돌아보면서 완주의 매력에 푸욱 빠졌다"며 "여태명 교수의 글씨를 활용, 완주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로 국내 유일의 차별화된 관광안내판이 탄생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가 관광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며 "오는 2021년을 완주방문의 해로 지정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과 관광인프라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대책마련 촉구”

완주군의회, 전주시·국방부 요지부동 태도, 책임전가에 대한 전북도 결단 요구

완주군의회가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대책마련을 촉구 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2차분회의에서, 윤수봉(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및 전라북도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주시와 국방부의 밀실행정으로 완주군·이서면 상공이 침범당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주시와 국방부는 본 사태 해결과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며 군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와 국방부의 책임 떠넘기기 경풍 게임으로 장기화로 치달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 사태를 관망하며 침묵하고 있는



완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2차분회의에서,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 운행 중단 및 전라북도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라북도도 대응적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전주시·국방부는 사전협의 없는 독선적 행태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완주군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사과를, 헬기 노선 운행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항공대대 이전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 추진

완주군이 동절기를 맞아 수도시설 동파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상수도시설(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대책'을 수립해 동절기 수도관, 계량기 등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한파기간에 집중되는 상수도관 동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 동파 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가압장, 배수지, 급수전 등 주요 시설 현장점검도 펼친다.

또한, 내년 3월까지 상수도 동파 점검반·비상급수반을 운영하고 동파대비 월동 장비를 확보하는 등 비상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방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겨울철 계량기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열팩(동파방지팩) 1000개와 동파방지 비닐 커버 5000개를 배포한다.

상수도관 동파사고 발생 시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시 비상급수차량 운행과 함께 2개 권역 5개 상수도대행업체를 활용한 누수복구 기동반도 운영한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평선중학교 학부모회, 사랑의 김장 나눔 실천

지난 22~24일(3일간) 김제 지평선중학교에서 학부모회 주관으로 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이 참여하여 2019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추진되었다. 2019년 지평선중학교 학부모회 사랑의 김장 나눔에서 담근 김장 김치는 김제시장에인종합복지관 재가 장애인 및 이용자에 100박스, 성덕면 경로당 및 독거노인에게 50박스가 전달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은 성덕면주민자치위원회, 성덕면사무소, 김제시장에인종합복지관, 지평선중학

교 학부모회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성덕면주민자치위원회(조혜영 회장)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500포기를 후원하였고, 김제시장에인종합복지관에서는 학생 간식과 장애인 100세대 김장 배달을 도맡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감동이 두 배가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밭에서 배추, 무, 대파 등을 직접 수확하였으며 배추 절임부터 양념 재료 손질, 박스 포장 및 경로당과 독거노인에게 김치를 직접 배달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경로당을 운영관리하면서 난방비 및 다양한 지원 등 미등록 경로당은 복지관등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복지소외지역 제로인 도시 만들기 최선”

경로당 없는 복지소외지역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큰 인기

김제시는 그간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총 623개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난방비 및 기능보강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조성된 한울타리 행복의 집 152개소 역시 주민들의 사랑과 큰 관심 속에 우리 곁에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김제시는 750개 마을 중 경로당이 없거나 미등록 경로당인 곳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법적 요건이 부족해 등록되지 못한 경로당을 조사, 21개소를 파악하였고 복지관등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맞추어, 원

예·요리교실, 제과제빵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11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시범 실시하였고 후속기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선용품 등 물품 지원도 관심 있게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혹한기 대비를 위해 노인회를 통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연 50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지소외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타시군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경과 등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미란 과장은 "김제시는 앞으로 미등록경로당 뿐아니라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이동복지관등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하여 복지소외지역이 제로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